

##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

- 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 -

이 경 하\*\*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를 통해 『태교신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다. 서구에서 태교 및 태아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유교의 전통 태교 관념이 전제하는 ‘태아기’의 중요성은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이 전제한 ‘선천적’ 대 ‘후천적’이란 대립항의 설정 자체에 균열을 가한다. 그런 점에서 태교 관념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태교신기』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태교신기』에서 ‘태’의 가변성에 대한 주장이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이 도달한 결론이나 현대 유전학이 이론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태교신기』는 태아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태’가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 태는 어머니와 단단히 연결되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태아기의 경험이 생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성 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에서도 출생 이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찾았다. 태아기의 무궁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출생 이후 교육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본 것은 『태교신기』의 성과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태교신기』가 ‘태’의 생물학적·유전학적 측면에도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기존의 태교론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태교신기』에 보이는 남방인과 북방인의 비교, 쌍둥이에 대한 언급 등은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대목들에서 발견되는 개체 및 개체군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관심에 새롭게 주목하였다. 이로써 태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 대한 통찰뿐 아니라 태 자체에 대한 생물학적 혹은 유전학적 문제의식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태교신기』의 학술적 가치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태교신기』는 ‘유전적 자질’과 ‘환경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는 물질로서의 ‘태’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전통 태교론과 차별화된다.

## 1. 문제제기

흔히 타고난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개개인의 성격이 양육 혹은 사회화 과정의 크고 작은 영향 속에서 형성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잘 변하지 않는 타고난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예기치 못한 낯선 상황에 대한 반응을 연령대별로 살핀 발달심리학의 한 실험은 ‘타고난 성격’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뒷받침한다. 즉 반응 정도에 따라 각각 고반응성과 저반응성으로 분류된 생후 4개월 된 아기들은 이후 14개월, 4세, 7세, 11세에 실시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대체로 같은 기질적 편향성을 보였다.<sup>1)</sup> 성격뿐 아니라 지능이나 체력 면에서도 개인마다 ‘타고난’ 자질에 차이가 있음은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타고나다’란 말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이 말은 다분히 출생을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질이 출생 바로 그 시점에 결정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출생보다 훨씬 이전, 잉태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뜻인가? 그 시기가 잉태된 출생이든 간에 생득적(生得的) 자질을 중시하는 입장은 출생 이후의 환경과 교육에 의해 획득된 자질을 중시하는 입장과 맞선다. 흔히 ‘본성 대 양육’ 혹은 ‘유전 대 환경’으로 표현되는 논쟁은 “신체적, 행동적 형질과 관련된 개개인의 차이를 유발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타고난 특성(본성)과 개인적 경험(양육)의 상대적인 중요성”<sup>2)</sup>이 쟁점인데, 서구에서는 일명 20세기의 백년전쟁으로 불릴 만큼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대단했다고 한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유교문명권에서 친숙한 ‘태교’라는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개인의 ‘타고난’ 여러 자질이 잉태의 순간 혹은 출생의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전 시기에 걸쳐 형성되고 변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극단적인 예로, 조선후기에 『규합총서』(閨閣叢書) 같은 책에는 뱃속의 여아를 남아로 바꾸어준다는 ‘비법’이 여럿 소개되어 있는

- 
- 1) 예를 들어, 생후 4개월 실험에서 고반응성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4세 반 때 실험에서 낮을 가리고 말이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청소년기 실험에서도 저반응성 아이들에 비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명확하고 규칙이 분명한 상황에서 훨씬 편안하게 느끼는 성향이 있다고 관찰되었다. 그러한 차이는 생체반응실험에서도 확인되는데, 낮을 많이 가리는 고반응성 아이들은 편도체 반응이 훨씬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케이건(2011), 김병화 옮김, 『성격의 발견: 내 안에 잠재된 기질·성격·재능에 관한 비밀』, 시공사, pp. 53-77.
  - 2) 이블린 폭스 켈러(2013), 정세권 옮김, 『본성과 양육이라는 신기루』, 이음, p. 70.
  - 3) 매트 리들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서구 과학계에서 진행된 ‘본성 대 양육’ 논쟁의 방대한 역사를 『본성과 양육: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2004, 김영사에서 흥미롭게 정리하였다.

태4), 이는 태아의 성별이 출생 이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확정되지 않는다는 민간의 속신을 반영한다. 허준이 편찬한 의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에도 소개되어 있는 ‘변녀위남법’(轉女爲男法)은 그 과학적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변화하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교는 유교문화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관념으로 그 기원이 기원전 2세기 가의(賈誼)의 『신서』(新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sup>5)</sup>,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인 태교 관념을 계승하면서 본격적으로 태교에 관한 이론을 개진한 최초의 문헌이 바로 1800년(정조 24)에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 1739~1821)가 한문으로 지은 『태교신기』(胎教新記)이다. 『태교신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초기 연구를 이어<sup>6)</sup>, 조선 후기 양반여성의 학문과 글쓰기가 도달한 또 하나의 경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 논문들이 나왔으며<sup>7)</sup>, 유교 교육론 및 태교론의 역사에서 『태교신기』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sup>8)</sup> 이를

- 4) 여태를 남태로 바꾸는 비법으로 소개된 예를 들면, 남편이 장날에 새 도끼자루를 직접 만들어서 임부가 자는 자리 아래 몰래 넣어둔다든가, 임부가 활시위를 100일 동안 허리에 두르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효험을 본 사람이 천만 명이나 된다는 부연설명도 있다. 이경하(2013), 「불임을 치료하고 아들 낳는 비법을 기록하다: 『규합총서』와 『태교신기』가 전하는 임신과 출산」, 『실용서로 읽는 조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글항아리, pp. 212-217.
- 5) 장정호(2008), 「한·중 전통 태교론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18, 교육사학회, p. 61.
- 6) 최범훈(1988), 「사주당의 『태교신기』에 대하여」, 『선정어문』 16·17, 서울대 국어교육과; 정양완(2000), 「『태교신기』에 대하여: 배 안의 아기를 가르치는 태교에 대한 새로운 글」,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 7) 김미란(1994), 「조선 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혜순(2007), 「18세기말 19세기초 이사주당의 태교의식에서 드러나는 여성실학정신」,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문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통해, 사주당의 태교론이 여성의 입장을 옹호하는 동시에 남성중심적 가치를 내면화한 측면이 지적되었고,<sup>9)</sup> 『태교신기』를 위시한 한국의 태교론이 강한 도덕·교육본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교론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태교를 중시하는 관념은 유교문화권에서 매우 친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태교신기』를 비롯한 전통 태교론이 갖는 의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태교론이 천명지성(天命之性), 기질지성(氣質之性), 정본신시(正本慎始)<sup>10)</sup> 등 유교사상과 한문 텍스트의 독특한 개념과 논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태교신기』 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그 이론의 가치가 현대인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본론에서 상론하겠지만, 서구에서는 태교 및 태아기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후반에 유전학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태교 관념이 전제하는 ‘태아기’의 중요성은 서구의 본성과 양육 논쟁이 전제한 ‘선천적’ 대 ‘후천적’이란 대립항의 설정 자체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방인과 북방인의 비교라든가 쌍둥이에 대한 언급 등 『태교신기』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혹은 유전학적 단서들은 사

8) 장정호(2005),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50,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장정호(2008); 정해은(2009),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9) 임부가 보호받을 존재라는 점, 태교 주체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점, 태교의 책임을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에게까지 확대한 점, 그리고 임신의 의미를 ‘대 잇기’에서 ‘아이 낳기’로 해석한 점 등은 『태교신기』의 여성중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혜순(2007)). 그럼에도 『태교신기』에서 강조하는 여성의 역할과 몸가짐 등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추구하는 남성중심의 가치가 투영된 것이란 점에서, 사주당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정해은(2009)).

10) 서한 때 가의가 『신서』를 통해 구체화한 태교설의 중지가 ‘정본신시(正本慎始)’이다. 이것은 “그 근본을 바르게 하면 만물이 다스러지고 그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잃으면 천리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처음을 신중히 한다”라는 『역』의 구절에 근거한다(장정호(2005), p. 483).

주당의 이 저술이 기존의 태교론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 태교론 및 현대 유전학과의 비교를 통해 『태교신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태교신기』에서 ‘태’의 가변성에 대한 주장이 전통 태교론을 계승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인 한편,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이나 현대 유전학이 이론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둘째, 『태교신기』가 ‘태’의 생물학적·유전학적 측면에도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기존의 태교론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태교를 통해 무엇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태교신기』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본성(유전)과 양육(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밝혀질 것이다. 이로써 『태교신기』가 갖는 의의와 한계가 함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2. ‘태’의 가변성과 태아기 설정의 의의

태교의 이치를 논하는 『태교신기』<sup>11)</sup> 제1장은 ‘교육’이란 측면에서 출생 전과 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2)</sup> ‘아버지 낳음’과 ‘어머니 기름’과 ‘스승 가르침’이 교육의 측면에서 하나라 하고, 스승의 십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sup>13)</sup> 양태(養胎)가 태아

11) 본고에서 『태교신기』 원문 인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37년 간행본에 따른다. 이 간행본은 1988년 여강출판사에서 영인 출간되었다. 김신근 편(1988), 『胎産要錄·諺解胎産集要·胎教新記·産方隨錄·醫寶』(景印), 여강출판사.

12) 『胎教新記章句大全』, 1장. “右第一章, 只言教字. 此章, 言氣質之病, 由於父母, 以明胎教之理.” 이하 주석에서 『胎教新記章句大全』는 『胎教』로 약칭한다.

13) 『胎教』, 1장 2절. “父生之, 母育之, 師教之, 一也. 善醫者, 治於未病, 善教者, 教於未生, 故師教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 이하 『태교신기』 본

의 ‘생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태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태아의 ‘심성적’ 자질의 함양까지 고려한 활동이다. 『태교신기』는 제목에서 ‘태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본문에는 ‘양태’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태’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드러난다. 태교가 후천적 교육에 선행되는 교육 단계로서 도덕 본위의 유학적 교육원리에 부합한다고 평가되지만,<sup>14)</sup> 『태교신기』에서 이야기하는 태교가 단지 도덕적 심성 교육에 한정되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다시 상론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태를 기르고 가르친다’[養胎, 胎教]는 관념은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에 비추어 보면 양육 혹은 교육의 영향을 중시하는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태교론에서 강조하는 교육이나 양육은 출생 이전인 태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서구 과학계의 본성-양육 논쟁에서 ‘양육’은 오랫동안 그 대상 시기가 출생 이후였다. 본성-양육 논쟁에서 출생이란 사건을 기점으로 한 ‘선천적/후천적’ 구분의 오류는 최근에 와서야 지적되고 있다.<sup>15)</sup>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태아기’에 주목하고 그 중요성을 설파한 『태교신기』는 전통 태교론을 계승하면서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화한 결과이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편으로 『태산서』(胎産書)와 같은 의서의 태교론에 가 닿고,<sup>16)</sup> 다른 한편 가의의 『신

문 인용에서 ‘절(節)’의 구분은 각 장마다 ‘○’로 표시된 항목 구분에 따른다. 『태교신기』는 ‘장’뿐만 아니라 ‘절’을 나누고 “此節, 首言人生氣質之由”와 같은 식으로 해당 부분의 주제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14) 장정호(2005), p. 478.

15) “양육이 본성보다 더 유연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부분적으로 양육이 출생 후의 일이고 본성이 출생 전의 일이라는 오류에서 기인한다.”(매트 리들리(2004), p. 224); “분명 출생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를 가져오지만, 발생학적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변화 자체가 그만큼의 큰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블린 폭스 켈러(2013), p. 134).

16) Kim, Sung soo (2010), “Publication of Obstetric Books and Actual Childbirth Cases of

서』와 같은 유교 사상 및 교육론과 연결된다.<sup>17)</sup> 중국의 태교론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의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태산요록』(胎產要錄) 같은 부인과(婦人科) 전문의서에도 「태교론」이 실려 있다.<sup>18)</sup> 이후 허준의 『언해태산집요』에는 ‘태교’ 장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禁忌(즉식 빚겨집이 금기홀 법이라)” 항목을 비롯해 태교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의서에서 전개된 양태 혹은 태교 논의와 별개로, 유향의 『열녀전』에 실려 전하는 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의 일화가 조선의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sup>19)</sup> 이처럼 유교 전통 속에서는 태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었고, 『태교신기』는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기존의 의학적 사상적 논의를 토대로 체계화한 것이다.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치중한 『규합총서』 권4 ‘청낭결’(靑囊訣)과 비교하면, 『태교신기』는 태교의 실제뿐 아니라 이론을 세웠다고 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교신기』는 태아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태교신기』 본문과 원주, 서문 등을 참조해 볼 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태’가 가변적인 존재라는

---

the Chosŏn Dynasty”, *Horizon* 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7) 장정호(2005); 장정호(2008).

18) 1433년에 편찬된 『향약집성방』은 송대 진자명(陳自明)의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권54부터 권75까지가 임신과 출산, 신생아에 대한 기술인데, 권57 ‘태교문(胎教門)’에 태아의 성장과 태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445년 편찬이 완료된 『의방유취』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항목이 『향약집성방』의 두 배가 넘는 분량이다. 1434년 세종의 명에 따라 노중례(盧重禮)가 편찬한 『태산요록』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요점을 정리한 책이다. 여기에도 「태교론」(胎教論) 항목이 있다. 조선 전기 출산전문서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im, Sung soo (2010) 참조.

19) 劉向, 『列女傳』, 『母儀傳·周室三母』; 태임의 태교 일화는 소혜왕후가 편찬한 『內訓』 『母儀章』에도 실려 있다.

것, 둘째, 태는 어머니와 단단히 연결되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셋째, 태아기의 경험이 출생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 과학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을까?

태교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태’의 가변성에 있다. 태가 가변적이란 말은 태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 성질이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태아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시기다. 신작(申絜)은 『태교신기』 서문에서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을 이렇게 적었다.

무릇 부부가 정(精)을 맺을 때는 두터움과 열음이 나뉘지 않다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형체를 이루고 나면 성인과 범인이 이미 나뉜다. 이런 까닭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로써) 밝고 성스러운 덕을 기를 수 있으나, (태어난 이후에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훌륭한 가르침으로도 상균(商均)과 단주(丹朱)의 악을 고칠 수 없다. 따라서 형체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르침이 마음을 따를 수 있으나, 이미 형체를 이룬 다음에는 학습으로 천성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태교가 중요한 까닭이다.<sup>20)</sup>

조선시대 의서에서는 태아기를 ‘배’(胚)와 ‘운’(暉)과 ‘태’(胎)로 구분하고 있지만,<sup>21)</sup> 태교론에서 언급되는 ‘태’는 배아 단계부터 출생 이전까지의 태아기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태가 잉태된 시점부터 ‘사대성형’(四大成形) 이전까지는 기질이 정해지지 않아서 성스러운 덕으로 잘 기르면 성인의 자질을 갖추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사대성형’ 이후에는 성인의 자질과 범인의 자질이 이미 정해

20) 『胎教』, 『胎教新記序』. “夫二儀構精, 醇醜未分, 四大成形, 聖凡已判. 是以端莊之化, 可以有明聖之德, 勳華之導, 不能變均朱之惡. 蓋未分則教可從心, 已判則習不移性, 此胎教之所以重也.”

21) 첫 달에 피가 엉기어 한 방울 이슬처럼 맺힌 것을 ‘胚’, 2개월째에 복숭아 꽃잎처럼 변한 것을 ‘暉’, 3개월째에 맑은 코처럼 흐르고 남녀의 형상을 띠는 것을 ‘胎’라고 했다(『諺解胎産集要』, 『孕胎 아기 빈 증휘라』).

져서 훌륭한 가르침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성인’은 인지면에서나 덕성면에서나 모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사대’(四大)는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의 구성요소인 지·수·화·풍 네 가지이다. ‘사대성형’은 지·수·화·풍의 기운을 받아 신체와 지능 등이 형성된 시기를 말한다. 그것이 반드시 출생을 기점으로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출생 이전 태아기의 상당기간 동안에 성인과 범인의 자질이 나날 만큼의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파악한다는 점이다.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에 비하면, 출생 이후 교육에 의한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가르침으로도 고칠 수 없을 만큼 말이다.

무릇 태(胎)란 천지의 시발점이고 음양의 근원이며, 조화의 탁약(橐籥)이고 만물의 권여(權輿)이다. 태초의 음양이 어우러져 아직 혼돈 속에 있을 때, 오묘한 기운을 발휘하여 은밀하게 돕는 공이 사람에게 있다.<sup>22)</sup>

탁약은 흔히 풀무라고 옮기는데, 대장간에서 불을 일으킬 때 쓰는 도구이다. 권여는 저울대와 수레 바탕이다. 저울과 수레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사물의 시초라는 의미로 쓰인다. 한마디로 ‘태’가 천지만물의 첫 단계임을 그런 비유를 들어 말했다고 볼 수 있다. 태아기는 ‘태초의 음양이 어우러져 아직 혼돈 속에 있는’ 시기다. 사람에게 있는 칠궁(七竅) 혹은 구궁(九竅)<sup>23)</sup>가 뚫리지 않은 시기[渾沌之竅未鑿], 즉 아직 사람의 형체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한 시기에 ‘은밀하게 돕는 공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사람이 태를 잘 길러

22) 『胎教』, 『胎教新記序』. “夫胎者, 天地之始, 陰陽之祖, 造化之橐籥, 萬物之權輿, 太始氣氤, 渾沌之竅未鑿, 妙氣發揮, 幽贊之功在人.”

23) 사람의 신체에 있는 구멍을 일곱 개 혹은 아홉 개라고 한다. 칠궁(七竅)는 눈 둘, 귀 둘, 콧구멍 둘, 입을 가리키고, 구궁(九竅)는 여기에 똥·오줌 구멍을 더한 것이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즉 태교의 힘을 뜻한다.

태교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태가 어머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태아기의 자궁 환경이 태의 기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태 자체가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즉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면, 태아기의 양육이나 환경은 별반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교신기』는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을 대단히 크게 전제하고 있는 만큼, 태가 형성되는 열 달의 환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의원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한기가 들면 아이도 춥고, 어머니가 덥다 느끼면 아이도 덥다” 하였으니, 이 이치를 알겠다. 자식은 어머니에게 마치 오이가 넝쿨에 달려있는 것과 같아서, 젖고 마르며 설며 익음이 바로 그 뿌리가 물을 대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어머니가 조섭을 못하고도 능히 태를 길러내고, 태를 잘 기르지 못하고도 자식이 능히 재주 있고 오래 사는 자를 나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sup>24)</sup>

사주당은 태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넝쿨에 달린 오이에 비유하고 있다. 물이 부족한 넝쿨에서 오이가 잘 자라기 어렵듯이,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를 잘 기를 수는 없다. 태아와 어머니는 혈맥이 이어져 있어서, 어머니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곧 태아의 뼈가 되고 살이 되며,<sup>25)</sup> 어머니의 기쁘고 화나고 두려워하는 모든 감정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기질 형성에 영향을 준다.<sup>26)</sup> 그렇기 때

24) 『胎教』, 8장 1절. “醫人有言曰, 母得寒, 兒俱寒, 母得熱, 兒俱熱, 知此理也. 子之在母, 猶瓜之在蔓, 潤燥生熟, 及其根之灌若不灌也. 吾未見母身不攝而胎能養, 胎不得養而子能才且壽者也.”

25) 『胎教』, 4장 14절. “腹子之母, 血脈牽連, 呼吸隨動, 其所喜怒, 爲子之性情, 其所視聽, 爲子之氣候, 其所飲食, 爲子之肌膚, 爲母者曷不謹哉.”

문에 아이를 밴 어머니는 스스로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주변 사람도 임부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태교란 태아의 양육 환경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필수요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유동물의 뇌 발달이 자궁 환경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현대 유전학의 ‘교차양육 실험’은 매우 흥미롭다. 이 실험은 두 종류의 쥐를 수정 직후 다른 자궁에 교차 착상시켜서 양육하고, 분만 후 그 쥐들의 행동을 관찰한 것이다. 수정 직후 A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된 B쥐들은 A쥐처럼 행동했는데, 그 원인은 다른 케이스들과 비교할 때 A어머니의 자궁이 B쥐의 유전자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되었다.<sup>27)</sup> B쥐의 기질적 특성이 수정체 단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 않고, 태아기 동안의 환경에 의해 일부 바뀌었다는 말이다.

인간의 경우 약지와 검지의 길이에 관한 연구는 자궁 환경이 태의 기질적 변화를 낳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태아기에 자궁에서 노출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지와 검지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약지가 길어지며 이른바 남성성이 강하다고 한다. 남자는 대개 약지가 검지보다 길고, 여자는 대개 약지와 검지의 길이가 같다. 약지가 특별히 긴 남자들은 자폐증이나 말더듬, 면역기능 이상 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역시 태아기에 테스토스테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sup>28)</sup>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약지 길이의 관계는 태아기 환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은 예일 뿐이다. 태아기의 자궁 환경에 따른 유전자 변화에 주목하는 최근의 많은 과학실험들은 『태교신기』의 주

26) 『胎教』, 4장 2절. “學友久處, 猶學其爲人, 況子之於母七情肖焉. 故待妊婦之道, 不可使喜怒哀樂或過其節.”

27) 매트 리들리(2004), p. 212.

28) 매트 리들리(2004), p. 223.

장이 단지 피상적인 도덕 교육론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태교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태아기의 경험이 출생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주당은 태아기의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생 후 개인의 신체, 건강, 지능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태 기름[養胎]을 삼가지 않으면 어찌 다만 자식이 재주가 없을 뿐 이리오. 그 형상이 온전치 못하고 병도 심히 많을 것이며, 낙태하거나 난산할 수도 있고, 비록 낳아도 쉽게 죽는다. 이는 진실로 태를 제대로 기르지 못한 탓이다.<sup>29)</sup>

양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악은 일차적으로 낙태나 난산으로 나타나고, 무사히 태어난다 해도 요절, 기형, 다병(多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태교신기』 제1장에서 언급한 기혈, 지각, 형질, 재능 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sup>30)</sup>

이와 관련해서도 현대 유전학의 흥미로운 보고들이 있다. 영양 결핍을 겪은 산모들과 그 아기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출생 시 체중이 이후의 비만 또는 노년성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44년 네덜란드에서 7개월간 기근이 심했는데, 그 당시 태아였던 약 4만 명의 출생 시 체중과 이후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는 식이다.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출생 시 저체중인 아이들은 자라서 비만이 되거나 심장병, 당뇨병 등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sup>31)</sup> 생명체의 발생

29) 『胎教』, 6장. “養胎不勤, 豈惟子之不才哉. 其形也不全, 疾也孔多, 又從而墮胎難產, 雖生而短折, 誠由於胎之失養.”

30) 『胎教』, 1장 6절. “氣血凝滯, 知覺不粹, 父之過也, 形質寢陋, 才能不給, 母之過也, 夫然後責之師, 師之不教, 非師之過也.”

31) 매트 리들리(2004), p. 222.

과정 전반에서 DNA 이상의 무언가가 관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태아기의 환경과 유전적 특질의 복잡한 관계 해명에 주력하는 새로운 유전학 분야가 후생유전학이다.<sup>32)</sup>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자식의 성격이 결정되는 시기가 유년기의 여러 해가 아니라 임신의 순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게”<sup>33)</sup> 한다.

앞서 신작의 『서문』에서도 확인했듯이, 『태교신기』는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반면, 출생 이후 교육에 의한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신작이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태아기에 결정된다고 했듯이, 사주당은 열 달 간 어머니가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식이 군자도 되고 소인도 된다고 했다.<sup>34)</sup> 태아기의 어떤 작은 차이가 출생 후 도덕적 인격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셈이다. 태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다소 지나쳤던 반면, 출생 이후의 교육과 환경이 도덕적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 3. 『태교신기』의 유전학적 관심

유전학이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19세기 말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 유전학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후 유전과 염색체의 관계, 염색체지도, DNA의 발견과 구조 해명 등 놀라운 성과들이 이루어졌다.<sup>35)</sup> 현재는 집단유전학, 행동유전학, 형질유전학, 미생물유전학, 분자

32) 이블린 폭스 켈러(2013), p. 17.

33) 매트 리들리(2004), p. 350.

34) 『胎教』, 5장 2절. “寧憚十月之勞, 以不肖其子, 而自爲小人之母乎. 曷不強十月之功, 以賢其子, 而自爲君子之母乎.”

35) 강영희 대표편집(2008),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p. 1191.

유전학, 후생유전학 등 전공이 세분화되어, 과학도가 아닌 일반인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벅차다. 20세기에 학문이 전공별로 세분화 되어온 경향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유전학에서 새로운 분야의 출현은 그 자체로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대변하는 것 같다.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발견에 의거해 유전(자)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야와 실험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를 유전(자)라는 물질현상을 통해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다. 그러한 유전적 자질에 관한 문제의식을 『태교신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3장의 목표다.

사람이 타고나는 성(性)은 하늘에 근본하고 기질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진다.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점차 성(性)을 가리게 되니,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쁨에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6)</sup>

이것은 『태교신기』 제1장의 첫 번째 대목이다. 제1장은 책 전체의 총론에 해당하면서 태교의 이치를 논한 것인데, 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개개인의 기질이 부모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up>37)</sup> 본성-양육 논쟁에서의 ‘본성’ 개념은 인간 보편의 성질이라기보다 인간 개개인이 타고난 성질 즉 ‘천성’(天性)의 개념에 더 가깝다. 인간 개개인의 천성이란 뜻으로 『태교신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성’이 아니라 ‘기질’이다. 위 인용문의 본문 원주에서는 ‘성’과 ‘기질’을 ‘천명’과 ‘기질’, ‘천명지성’(天命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대별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을 갖고 있는데 천명지성은 치우침이 없지

36) 『胎教』, 1장 1절. “人生之性, 本於天, 氣質成於父母, 氣質偏勝, 馴至于蔽性, 父母生育, 其不謹諸.”

37) 『胎教』, 1장. “右第一章, 只言教字. 此章, 言氣質之病, 由於父母, 以明胎教之理.”

만 기질지성은 치우침이 있고, 그 치우침으로 인해 ‘본연의 지선(至善)’이 가릴 수 있다고 했다.<sup>38)</sup>

기질지성에 치우침이 있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태교신기』에서 ‘성’은 언급되는 각 대목마다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위 대목에서 언급된 ‘하늘에 근본한 성’이란 개인적 차이를 뜻하는 ‘기질’과 구별되는 인간의 보편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질’은 단지 현대적 의미에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신체, 지능 등을 포함한 개인의 특질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주당은 태교론의 첫머리에서, 인간 개개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sup>39)</sup> 하는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

기혈(氣血)이 막히고 지각(知覺)이 맑지 못함은 아버지의 허물이고, 형질(形質)이 못나고 재능(才能)이 부족함은 어머니의 허물이다. 그렇게 낳아 놓고 스승만 책망하는데, 스승이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은 스승의 잘못이 아니다.<sup>40)</sup>

사주당은 개개인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을 크게 넷으로 나누고, 기혈과 지각은 아버지, 형질과 재능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보았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태교신기』에서 다른 용례가 없어서 명확하지 않다. 추측컨대, 기혈이 막혔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고 형질이 못났다는 것은 외모가 흉하고 열등함을 뜻하므로, 기혈과 형

38) 『胎教』, 1장 1절 釋音義. “朱子曰, 天命與氣質, 亦相率同纜, 有天命□有氣質, 若無此氣則, 此理如何頓放, 天命之性, 本未嘗偏, 但氣質所稟, 卻有偏處, 蓋此氣承載此理而行, 氣有傾向, 理不得不隨, 故氣質之性, 用事既久, 遂能掩蔽本然之至善, 實由於男女未謹胎教, 使其方至之氣, 方凝之質, 不得中正而然也.”

39) 『胎教』, 1장 1절. “此節, 首言人生氣質之由.”

40) 『胎教』, 1장 6절. “氣血凝滯, 知覺不粹, 父之過也, 形質寢陋, 才能不給, 母之過也, 夫然後責之師, 師之不教, 非師之過也.”

질은 모두 내적·외적인 육체적 자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지각과 재능은 지능이나 윤리의식, 어떤 일에 대한 재주와 능력 등 정신적 자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주당은 기혈과 지각의 열등함을 아버지의 탓으로, 형질과 재능의 열등함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근거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기질지병’(氣質之病)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하고, 그것은 출생 후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크게 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식의 기질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의 영향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호하다.

인간 개개인의 차이에 대한 물음은 집단 간의 차별성과 특징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된다. 개체간의 혹은 개체군간의 유사성과 차이의 문제는 유전학을 비롯한 모든 생물학의 핵심 주제이다. 유전학의 기원은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는 과학적 시도였다.<sup>41)</sup> 인간과 다른 생물의 비교뿐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비교 역시 생물학의 주요 관심사였다. 여성과 남성, 백인과 흑인, 유럽인과 아시아인 등처럼 사람들을 어떤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 그리고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차이 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유전학에서도 중요한 숙제였다.<sup>42)</sup> 『태교신기』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41)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와 유사하면서 다르고, 인간 개개인도 어떤 면에서는 같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데카르트가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역설했다면, 다윈은 그 유사성에 보다 주목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침팬지는 차이보다 유사성이 훨씬 크다. 1975년 DNA 분석을 통해 인간과 유인원의 유전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너무 비슷해서 차이를 발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까지 게놈의 유전자 배열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과 침팬지는 최소한 95% 이상이 일치하며, 그 차이도 유전자가 서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3만 개 유전자의 서로 다른 배열에 있다고 한다(매트 리들리(2004), pp. 45-56).

42) 이블린 폭스 켈러(2013), p. 64.

남방에서 아이를 배면 입이 큰데, 남방 사람은 너그러워 어진 것을 좋아한다. 북방에서 아이를 배면 코가 높은데, 북방 사람은 굳세어 의로움을 좋아한다. 이 모두 기질의 탓으로, 잉태된 후 열 달의 기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잉태할 때부터 삼가야 한다.<sup>43)</sup>

이 본문의 원주에서는 “남방은 물이 깊어 사람들의 입이 크고, 북방은 산이 높아 사람들의 코가 크다”고 했다. 남방 사람이 너그럽고 북방 사람이 굳세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으로 가르치고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남방의 강함이요, 병기를 깔고 죽는 것을 피하지 않음이 북방의 강함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sup>44)</sup> 공자의 말은 본래 『중용』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남방인과 북방인의 기질적 차이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상기 인용된 본문과 원주에서는 모두 일차적으로 남방과 북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입이 크고 코가 높은 ‘신체적 자질’과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각각의 ‘성격적 특성’과도 연결시키면서, 그 원인이 태교에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을 현생인류의 이동진화론에서 말하는 ‘기후적응형질론’에 입각해 보면, 남방과 북방은 각각 덥고 추운 기후대를 뜻하고, 코와 입에 대한 언급은 호흡 및 온도적응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북방 사람은 추운 기후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폐기능의 강화뿐 아니라, 폐로 들어가는 찬 공기의 가온가습(加溫加濕)을 위해 코가 상대적으로 길고 크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직선적인 성향을 키우고, 추위와 굶주림

43) 『胎教』, 2장 2절. “胎於南方, 其口闊, 南方之人, 寬而好仁, 胎於北方, 其鼻魁, 北方之人, 倔強而好義, 氣質之德也, 感而得乎十月之養, 故君子必慎之爲胎.”

44) 『胎教』, 2장 2절 釋音義. “南方水深, 故口闊, 北方山高, 故鼻魁, 孔子曰: “寬柔以教不報無道, 南方之強也. 衽金革死而不避, 北方之強也.”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강인한 성격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sup>45)</sup> 요컨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형질이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각 변화해간다는 말인데, 이러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태교신기』는 ‘잉태된 후 열 달의 기름’에서 찾고 있다.

『태교신기』에서 개체 및 개체군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또 다른 대목이 있다. 사주당이 주목한 것은 쌍둥이의 똑같은 얼굴, 같은 지역 혹은 동시대 사람의 유사한 성향이다.

쌍둥이가 얼굴과 모습이 반드시 같은 것은 태에서 기름이 같기 때문이고, 한 나라 사람이 숭상하는 습속이 서로 비슷한 것은 태를 기를 때 먹는 음식의 가르침 때문이며, 동시대 사람의 품격이 서로 비슷한 것은 태를 기를 때 보고 듣는 것의 가르침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태교의 첫 증거이다. 군자가 이미 태의 가르침이 이렇듯 명백함을 보고도 오히려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다.<sup>46)</sup>

사주당은 쌍둥이가 똑같은 모습을 한 것이 태에서 같이 길러졌기 때문이고, 같은 지역이나 동시대 사람의 유사함도 ‘태를 기를 때’[養胎] 즉 태아기에 비슷한 것을 먹고 보고 들은 ‘자연스런 효과’<sup>47)</sup>라고 했다. 그리고 태교의 증거가 이렇게 뚜렷한데 어떻게 태교를 하지 않겠는가 묻고 있다. 지역과 시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질이나 습성이 유사함은 출생 이후 자라나는 환경, 즉 문화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주당은 출생 이전 태아기의 유사한 경험에서 요인을 찾고 있다.

45) 조기호(2011), 『이사주당의 기후적응형질 고찰』, 『한국여성철학』 15, 한국여성철학회, pp. 34-35.

46) 『胎教』, 8장 2절. “孿子, 面貌必同, 良由胎之養同也. 一邦之人, 習尚相近, 養胎之食物爲教也. 一代之人, 品格相近, 養胎之見聞爲教也. 此三者, 胎教之所由見也. 君子既見胎教之如是其顯, 而猶不行焉, 吾未之知也.”

47) 『胎教』, 8장 2절 釋音義. “爲教, 言自然之效, 有如胎教也.”

사실상 쌍둥이는 유전적 자질과 후천적 양육의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대상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끌었던 소재이다. 근대 과학사에서 본성-양육 논쟁의 막을 열었던 프랜시스 골턴이 주목했던 것이 바로 쌍둥이였다. 본래 지리학자인 골턴은 자신의 팔촌인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 유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는 「쌍둥이의 역사, 본성과 양육의 상대적 영향력의 기준」이란 논문을 통해 유전의 힘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이후 발달한 행동유전학(behavioural genetics)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sup>48)</sup>

그런데 쌍둥이를 통해 골턴이 본성(유전)의 영향력을 주장했다면, 사주당은 양육(환경)의 힘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쌍둥이의 똑같은 모습이 태교의 증거라는 사주당의 주장은, 본성 대 양육 또는 유전 대 환경의 논쟁구도에 따르면 양육 또는 환경결정론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태아기의 환경과 교육은 출생 이후의 환경이나 교육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주당이 쌍둥이나 집단의 유사성의 원인으로 태교를 지목한 것을 유전-환경 논쟁에서의 환경결정론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아기’를 중시하는 태교 관념은 선천적 본성과 후천적 양육의 대립구도에 들어맞지 않으며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2장에서 살폈듯이, 태는 태아기의 환경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유전학적으로 표현하면, 태아기의 유전자는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자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전과 환경, 본성과 양육은 상호의존적이며, 태아기에는 특히 그렇다고 했다. 남방인과 북방인의 생김새와 성격이 환경의 영향 아래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변하는데, 그들의 독특한 기질 형성의 원인은 환경이나 유전자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 유전과 환경의 관계는 그만큼 긴밀하게 얽혀있다.

---

48) 매트 리들리(2004), pp. 108-113.

본성-양육 논쟁은 개인의 특성 형성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기여도를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논쟁하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에 보다 주목하면서 ‘인간 본성의 고정성과 유연성’에 대한 물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20세기에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등의 놀라운 발전에 힘입은 결과였다. 유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만큼 유전자 발현이 주변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전(자) 개념이 수정되고 있다.<sup>49)</sup> 즉 유전자는 틀에 박힌 대로 움직이지 않고,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그에 반응하면서 매순간 변한다.<sup>50)</sup> 따라서 개체 또는 개체군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미치는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다.

‘태’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태교의 효력을 논하는 『태교신기』 제2장에 는<sup>51)</sup> 특이하게도 사람의 태가 아닌 나무와 쇠의 본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 만물에 각기 본성이 있고 그것이 ‘태’의 단계에 형성된다는 주장이다.

무릇 나무는 가을에 배태되니, 비록 무성하지만 오히려 곧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다. 쇠는 봄에 배태되니, 비록 굳세고 날카로우나 오히려 녹아 흘러 합쳐지는 성질이 있다. 태라는 것은 성의 근본이다. 일단 형상을 이룬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말단이다.<sup>52)</sup>

나무와 쇠의 성질을 배태되는 시기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본문의 원주를 참조하면, 나무는 유월(酉月, 음8월) 즉 가을에,

49) 유전자 개념의 역사와 모호함은 이블린 폭스 켈러(2013), pp. 43-48, 91-92 참고할 것.

50) 매트 리들리(2004), p. 346.

51) 『胎教』, 2장. “右第二章, 只言胎字. 此章, 引譬以見胎教之效.”

52) 『胎教』, 2장 1절. “夫木胎乎秋, 雖蕃蕪, 猶有挺直之性. 金胎乎春, 雖勍利, 猶有流合之性. 胎也者, 性之本也. 一成其形而教之者, 末也.”

쇠는 묘월(卯月, 음2월) 즉 봄에 배태한다. 나무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곧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는 것, 쇠가 단단해 보이지만 불에 녹이면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 이러한 나무와 쇠의 본성이 각각 가을과 봄에 배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胎也者, 性之本也”에서 ‘성’은 기질 지성을 가리키며, ‘형상을 이룬 다음’이란 나무에 싹이 나고 사람이 출생한 이후를 뜻한다.<sup>53)</sup> 사물의 기질 혹은 본성을 품고 있는 물질로서의 ‘태’에 주목하면서, 태아기의 양육이 사물의 본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sup>54)</sup>

그런데 사주당은 태교의 이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나무와 쇠까지 언급했을까? 이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사주당의 문제 의식이 단지 인간 개개인의 기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자연물의 본성까지 확장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과거 생물학이 광물까지 포괄한 박물학(博物學)이었음을 감안하면,<sup>55)</sup> 인간과 나무와 쇠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태교론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태교에 대한 사주당의 관심과 저술을, 단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하는<sup>56)</sup> 현실적인 차원으로만 폄하해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사주당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성에 대한 의문을 태교론에 담았을 수 있다. 『태교신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

53) 『胎教』, 2장 1절 釋音義. “陰陽家, 木胎於酉, 生於亥, 旺於卯, 絕於申. 金胎於卯, 生於巳, 旺於酉, 絕於寅. …… 性指氣質之性. 木是柔物, 而猶能挺直者, 稟乎秋也. 金是剛物, 而猶能流合者, 稟乎春也. 性之得於胎教者如此. 一成其形, 謂木芽金礦及人之產也.”

54) 『胎教』, 2장 1절. “此節言, 物之性, 由於胎時之養.”

55) 생물학은 19세기까지 박물학(natural history)의 일부였다고 한다. 박물학은 동물과 식물 뿐 아니라 광물을 포함한 자연물의 종류, 분포, 성질 등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물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달과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현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었지만, 찰스 다윈만 해도 생시에 박물학자로 불렸다고 한다(강영희(2008), p. 552, p. 746).

56) 정해은(2009), p. 26.

게 보아야 할 부분은 태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의 측면뿐 아니라 ‘태’ 자체에 대한 사주당의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유교 교육론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태교신기』에 담긴 생물학적 혹은 유전학적인 문제의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4. 선천적 자질에 대한 『태교신기』의 관점

20세기 서구 과학계에서 전개된 본성-양육 논쟁에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페미니즘 등 여러 분야가 참여했다. 그것은 학문적 논쟁일 뿐 아니라 우생학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책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다.<sup>57)</sup> 이 논쟁은 기본적으로 인간 개개인 혹은 집단이 왜 서로 그렇게 다르고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포함)에 대한 철학적 물음과 연결될 것이다.

유교문명권에서 인간 본성의 문제는 주로 선과 악으로 규정되는 도덕적 관심 속에서 전개되었다. 맹자의 성선론(性善論), 순자의 성악론(性惡論), 성에는 선도 불선도 없다는 고자의 성무선무불선론(性無善無不善論) 등, 중국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든 악하다고 보든, 두 가지 입장은 모두 공자가 말한 “타고난 성(性)은 비슷하나 습(習)에 따

57) 우생학이라고 하면 흔히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떠올리지만, 20세기 초 서구에서는 우생학이 버젓한 학문분야로서 정부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는 정신질환자, 수감자, 극빈자에게 강제 불임을 규정하는 법을 채택했다. 이후 29개 주가 강제 불임법을 채택했고, 유전적으로 ‘모자란’ 미국인 6만여 명이 불임수술을 당했다. 현대에는 유전공학과 새로운 소비주의가 결합하여 국가의 강제성은 없는 이른바 ‘자유주의 우생학’이 실현되고 있다(마이클 샌델(2010), 강명신 옮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pp. 107-112).

라 차이가 생긴다”<sup>58)</sup>는 주장을 계승한 것이란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달리 동중서(董仲舒)의 성삼품설(性三品說)<sup>59)</sup>과 같이 인간 본성의 차별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는 역시 공자가 “상지(上智)와 하우(下愚)는 바뀌지 않는다”<sup>60)</sup>고 했던 말에 기원을 둔다. 한편 고자가 ‘성’을 ‘타고난 것’이란 의미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식욕과 색욕 같은 욕망으로 간주하고<sup>61)</sup> 다른 동물의 본성과 다를 바 없다고 했던 데 반해, 맹자는 ‘성’을 짐승과 구분하는 인간으로서의 ‘유(類)’적 본성, 즉 인·의·예·지와 같은 것으로만 간주하여 이목구비의 욕망을 여기서 제외하였다.<sup>62)</sup> 이처럼 인간들 사이에서 본성의 같고 다름, 인간과 다른 동물의 본성의 같고 다름, 본성의 항상성과 가변성 등 인성론의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을 선악의 문제인 윤리학과 긴밀하게 결합시킨 것은 중국 인성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된다.<sup>63)</sup> 그러한 경향성이 조선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으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태교론의 전개도 철학적 인성론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한국의 태교론은 중국 태교론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지만 그보다도 강한 도덕 본위·교육본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태교신기』에서도 임부의 도리를 “경(敬)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놓치지 않는 것”<sup>64)</sup> 또는 극기복

58) 『論語』, 『陽貨』. “性相近也, 習相遠也.”

59) 동중서는 ‘성인의 성’[聖人之性]과 ‘중민의 성’[中民之性]과 ‘하층민의 성’[鬪筭之性]으로 세 등급을 나누고, ‘중민의 성’만이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으로 인정했다(方立天(1998), 박경환 옮김,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예문서원, pp. 62-64).

60) 『論語』, 『陽貨』. “唯上智與下愚不移.”

61) 『孟子』, 『告子上』. “(告子曰): 生之謂性. …… 食色, 性也.”

62) 선진 시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인간 본성 논쟁에 관해서는 홍원식(1994),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중국철학연구회 편), 예문서원, pp. 48-58 참조.

63) 方立天(1998), p. 178.

64) 『胎教』, 4장 5절. “妊婦之道, 敬以存心.”

례를<sup>65)</sup> 요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 태교론을 계승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태교의 도덕적·교육적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태교신기』에 담겨 있는 인간 본성의 형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의식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

『태교신기』는 분명히 태에 대한 ‘양육’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결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태가 품고 있는 ‘선천적 자질’에 비해 후천적 교육의 영향력을 대단히 과소평가함으로써 생물학적 결정론과 유사해 보이는 지점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요컨대 『태교신기』의 문제의식을 ‘教’에 한정하지 말고 ‘胎’의 생물학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2장과 3장에서 지적했듯이, 본성-양육 논쟁에서 말하는 본성은 인간 개개인의 차이를 유발하는 이른바 선천적 특성을 가리킨다. 이 논쟁에서 본성은 종종 유전(자)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전자가 개인의 본성을 결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교신기』에서 이 본성에 가까운 개념은 기질이고, 그 선천적 기질을 품고 있는 것이 태이다. 태는 인간이나 동물, 식물, 혹은 광물의 본성을 지닌 것이라 했다. 본성이나 기질이란 말이 다분히 추상적인 데 반해서 태는 훨씬 물질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태교신기』에 담긴 유전학적 아이디어들에 관한 앞선 논의를 ‘태’의 성격과 연결시켜 보면, 『태교신기』는 끊임없이 胎‘教’와 ‘養’胎, 즉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자질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아버지 낚음과 어머니 기름과 스승 가르침은 하나다. 의술을 잘 하는 자는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스승의 십년 가르침이 어머니의 열

65) 『胎教』, 1장 4절.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非禮勿思, 使心知百體, 皆由順正, 以育其子者, 母之道也.”

달 기름만 못하고, 어머니의 열 달 기름이 아버지의 하루 낳음만 못하다.<sup>66)</sup>

이 대목은 『태교신기』 연구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일 텐데, 열 달 간 태교보다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하루 낳음’은 무슨 뜻일까? 인용된 대목 바로 뒤에 이어지는 1장 3절에서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다. 우선 육례(六禮)를 갖추어 혼인하고, 부부로서 평상시에 늘 공경하며 가볍게 대하지 않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상사(喪事)가 있거나 하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을 때 부부가 합방하지 않는 것. 이런 점을 지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했다. 이것은 태교의 도가 부부가 합방하는 사이에서 비롯되는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렸음을 말한 것이라 했다.<sup>67)</sup>

이 대목에 대해 흔히 부성태교(父性胎教)라고 해서, 아버지까지 태교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 사주당의 태교론이 갖는 진일보한 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장 3절의 표면적 의미는, 자녀잉태를 위해 부부교합에 임하는 경건한 자세, 즉 철저한 계획임신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태교의 근본인 ‘정본신시’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도덕본위적 태교론의 한 증거로 볼 수도 있다.<sup>68)</sup>

그런데 ‘아버지의 하루 낳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계획임신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마음가짐의 문

66) 『胎教』, 1장 2절. “父生之, 母育之, 師教之, 一也. 善醫者, 治於未病, 善數者, 數於未生, 故師教十年, 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 未若父一日之生.”

67) 『胎教』, 1장 3절. “夫告諸父母, 聽諸媒氏, 命諸使者, 六禮備而後, 爲夫婦, 日以恭敬相接, 無或以褻狎相加, 屋宇之下, 牀席之上, 猶有未出口之言焉, 非內寢, 不敢入處, 身有疾病, 不敢入寢, 身有麻布, 不敢入寢, 陰陽不調, 天氣失常, 不敢宴息, 使虛慾不萌于心, 邪氣不設于體, 以生其子者, 父之道也. …… 此節, 言胎教之道, 始自男女居室之間, 而其責專在於夫.”

68) 장정호(2008), p. 72.

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이다. 그것은 정신적 차원을 넘어서는 물질적인 형이하학의 차원이다. 앞서 언급한, 아버지가 자식을 얻기 위한 바른 도리로서 제시된 행동준칙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경건한 태도는 합방하는 날 ‘하루’에 국한하지 않는다. 평시에 예(禮)와 경(敬)이 몸에 밴 인격이기를 요구한다. 자식의 기질이 부모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예와 경을 갖춘 아버지여야 자식에게 좋은 자질을 물려줄 수 있다. ‘어머니의 열 달 기름’보다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하루 낚음’을 아버지의 좋은 유전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볼 수는 없을까?

가위의 『신서』 「태교」편을 인용한 『태교신기』 제10장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태교에서 중요함을 말한다. 자손의 배우자를 고를 때 ‘효도하고 공손하며 대대로 의로운 행실이 있는 집안의 사람을 택하는 것’을 ‘소성(素成)이라 하고, 군자의 가르침 가운데 최우선이라 했다.<sup>69)</sup> 『태교신기』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신서』 원문에는 “素成, 胎敎之道”라는 구절이 있다.<sup>70)</sup> 사주당이 ‘어머니의 기름’과 함께 ‘아버지의 낚음’을 태교의 범주에 넣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주당이 생각하는 태교에는 열 달간 태를 잘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태의 이른바 유전적 자질에 대한 고려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태교신기』에서는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부모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태를 잘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 했다. 태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출생 후에 성인도 되고 범인도 될 수 있다 하고, 그만큼 태가 지닌 기질의 변화 가능성은 무궁하니 태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태교에 의한 태의 무궁한 변화 가능

69) 『胎敎』, 10장. “胎敎曰, “素成爲子孫, 婚妻嫁女, 必擇孝悌, 世世有行義者.” 君子之敎, 莫先於素成, 而其責, 乃在於婦人, 故賢者擇之, 不肖者敎之, 所以爲子孫慮也. 苟不達聖人道者, 其孰能與之.”

70) 賈誼, 『新書』 卷10, 『胎敎雜事』.

성을 전제함으로써 양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태아기 동안에 형성된 기질이 출생 이후의 삶을 거의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선천적·생득적 자질이라고 하면, 그 개인이나 부모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뜻한다. 그런데 『태교신기』에서는 부모의 노력 즉 태교에 의해 그 선천적 자질이 바뀔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무궁하다고 간주한다.

무궁한 변화 가능성을 지닌 태는 현대의 본성-양육 논쟁이 도달한 새로운 유전자 개념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유전자는 고정된 어떤 본성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태 역시 어떤 기질을 품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변화 가능한 존재로 간주된다. 태의 기질과 유전자의 본성, 즉 선천적 자질은 태아기의 양육 환경에 따라 장차 큰 차이를 낳을 수도 있는 일종의 가능태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태교신기』의 학술사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세분해서 말하면, 하나는 『태교신기』를 비롯한 전통 태교론이 현대 과학에서 볼 때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고, 또 하나는 유교의 태교론이나 사상사에서 『태교신기』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태교신기』가 전통 태교론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이론서이자 지침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태교신기』에 담긴 문제의식과 관심사는 단지 태아 양육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다소 엉뚱하다고 여길 수 있는, 『태교신기』에 담긴 유전학적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태교신기』 저술에 의서 이외의 자연과학적 배경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전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문

면에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격과 형체와 능력 등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부모로부터 형성되는 기질’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점은, 『태교신기』에서 인간 본성의 형성에 대한 유전학적 관심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여겼다. 또한 모든 개별 사물의 본성을 지닌, 무궁한 변화 가능성을 지닌 물질로서의 ‘태’ 자체에 『태교신기』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태교의 문제가 단지 교육적, 철학적 차원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가설 아래, 『태교신기』에서 이론적인 서술에 해당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태교신기』에서 주장하는 태의 가변성과 태교의 중요성이 서구 과학사의 본성-양육 논쟁이 현재까지 도달한 지점과 기묘하게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교 관념이 전제하는 ‘태아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유교문명의 통찰이 서구의 근대 자연과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으며, 『태교신기』가 이른바 ‘유전적 자질’과 ‘환경에 의한 변화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는 물질로서의 태에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전통 태교론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서구에서 진행된 본성-양육 논쟁을 논의에 끌어온 것은 『태교신기』의 태교론이 유전과 환경, 선천적 자질과 후천적 교육, 생물학적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 등의 논쟁으로 표현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태교신기』는 선천적 자질의 형성에 부모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화하는 한편, 그 관심과 문제의식이 도덕적 심성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태교신기』 저술이 가능할 수 있었던 18~19세기 조선의 다양한 지적 경향과 사주당의 학문적 배경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 참고문헌

### 【자 료】

『閨閣叢書』

『新書』

『諺解胎産集要』

『胎教新記』

### 【논 제】

강영희 대표편집(2008), 『생명과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서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2013), 『실용서로 읽는 조선』, 글항아리.

김미란(1994),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중섭(2012), 『당대(唐代) 이상적 인간형: 태교를 중심으로』, 『중앙사론』 3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마이클 샌델(2010), 강명신 옮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매트 리들리(2004), 김한영 옮김, 『본성과 양육』, 김영사.

方立天(1998), 박경환 옮김, 『중국철학과 인성의 문제』, 예문서원.

심경호(2009), 『사주당 이씨의 삶과 문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이블린 폭스 켈러(2013), 정세권 옮김, 『본성과 양육이라는 신기루』, 이음.

이혜순(2007), 『18세기말 19세기초 이사주당의 태교의식에서 드러나는 여성실학정신』, 『조선조 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장정호(2008), 『한·중 전통 태교론 비교 연구』, 『교육사학연구』 18, 교육사학회.

\_\_\_\_\_(2005),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50,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정양원(2000), 『『태교신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정해은(2009), 『조선시대 태교 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제롬 케이건(2011), 김병화 옮김, 『성격의 발견』, 시공사.

- 조기호(2011), 「이사주당의 기후적응형질 고찰」, 『한국여성철학』 15, 한국여성 철학회.
- 최범훈(1988), 「사주당의 『태교신기』에 대하여」, 『선청어문』 16·17, 서울대 국 어교육과.
- 허준 역음(2010), 정호완 역주, 『(역주)언해태산집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홍원식(1994),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중국철학 연구회 편), 예문서원.
- Kim, Sung soo (2010), “Publication of Obstetric Books and Actual Childbirth Cases of the Chosŏn Dynasty”, *Horizon 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

A Study of *Taegyoshingi* in Relation to the  
Nature vs. Nurture Debate

- Comparing Traditional Taeyo Theory and Modern Genetics -

Lee, Kyungha\*

*Taegyoshingi*, a hanja text written by the female author Sajugang Lee (1738~1821), is a theoretical treatise and manual that deals with ‘taeyo’, a set of traditional beliefs and regulations regarding prenatal development. The title can be read as ‘a new record (*shingi*) on taeyo’. Previous studies have approached this text from a medical perspective or have tended to focus on its underlying Confucian beliefs. Howev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deas pertaining to biology and genetics that can be found in *Taegyoshingi*. Through such an approach, it is demonstrated that forming the core of taeyo theory is the notion that the ‘tae’ (fetus) is a physical entity which has its own nature, and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act of nurturing can bring about its transformation.

Sajugang Lee’s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nurturing the fetus (in other word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fetus is subject to change’. The nature-nurture debate which has

---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en place during the past century has now evolved to the stage that the central discussion is no longer on whether it is the environment or genetic factors that determine an individual's characteristics; now the discussion tends to focus on the issue of how the two factors are interrelated, as well as the flexibility/unmalleability of human nature. In other words, it involves a renegoti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nurture, a new perspective that can also be observed in *Taegyoshingi*.

